

"화교는 국내 소수민족... 권리 좀 찾아줍시다"

(조선일보 1999.09.04)

[양필승교수] "화교는 국내 소수민족... 권리 좀 찾아줍시다"

"화교는 우리나라 안의 유일한 소수민족입니다. 그들을 박대하면서 우리 해외동포의 인권을 얘기하는 건 말이 안되지요." 건국대 양필승(42·사학과) 교수는 '차이나타운' 건설 주창자이다. 그는 해외 화교자본 유치에 위해 지난 3월 설립된 '차이나타운 추진위원회' 공동위원장이자. 그는 오는 10월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되는 '세계 화상대회'에서 한국 차이나타운 투자유치 설명회에서 주제발표를 할 계획이다. 국내에 차이나타운이 건설되고, 화교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때 우리나라가 비로소 국제화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. 양 교수가 화교문제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난 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될 무렵이었다. "어느날 나이 많은 화교 한 분이 연구실에 찾아와 '한국의 화교는 다 망했다'며 저더러 차이나타운 건설에 힘을 보태달라고 하시더군요. 우리가 화교를 '인간'과 '국민'으로서 대접하지 않았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." 화교들은 지금까지 자기 집을 가질 수도, 대학교육을 받을 수도 없었다. 외국인으로 5년마다 비자갱신을 해야 했다. 화교는 우리 사회에서 언제나 '이방인'이었다. 60년대 20만명에 달했던 화교는 최근 1만7000여명으로 줄었다. 양 교수는 화교자본 유치를 위해 지난 5월 세계 화교자본의 양대 축인 싱가포르 상공회의소 테이핑 추안 회장과 홍콩상공회의소 청여우칭(진유 경·67) 회장을 만났다. 이들은 서울 차이나타운의 가능성에

기대를 걸었 다고 한다. 양 교수는 서울시에 차이나타운 부지 선정을 제안해 놓은 상태다.특섬지 역 8 만여평이 예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. 양 교수는 "주거와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차이나타운과 달리 금융과 부동산, 유통,첨단 정보 산업을 근간으로 하는 '21 세기형 차이나타운' 제안에 해외 화교자본이 관 심을 갖고 있다"고 말했다. 국내 화교들은 양 교수의 열렬한 지지자들이다. "작년에 미국에 갔을 때 10 여년전 한국을 떠난 화교를 만났습니다. 그 사람이'고향 같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'고 해 함께 울었습니다. 그들도 분명히 한국 국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" 양 교수는 "화교와 화교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화교의 재산권과 참 정권에 대한 제한을 전면 해제해야 한다"며 "화교와 한민족이 함께 살아 가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"고 말했다.

(*장일현기자 ihjang@chosun.com *).

<http://www.chosun.com/svc/news/www/viewArticle.html?id=199909030331>